

한국 최초 장로교 여목사 최덕지의 해방 직후 교회재건 운동에 나타난 교회론 연구 : 도나투스파 교회론에 비추어*

손은실(장로회신학대학교)

* 이 논문은 2017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논문의 초고는 제3회 온신학 전문위원집중세미나(2017.8.17.)에서 발표되었다.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다양한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감사를 드림이 마땅한 분은 재건교회에 대한 평생의 사랑을 담아 연구한 귀한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하여 주신 김영균 목사님과 안정희 사모님이다. 그리고 재건교회 연구 자료를 기꺼이 보내주신 김정일 박사님 그리고 이상규 교수님; 한국교회사와 도나투스교회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시거나 빌려 주셨던 김승태 박사님, 임희국 교수님, 안교성 교수님, 이치만 교수님, 서원모 교수님; 국내에서 구할 수 없었던 도나투스주의 불어와 영어 자료를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에서 스캔해 준 임교현 목사님, 켄 야마모토 박사, 장재호 목사님, 정동현 전도사님; 할머니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해 주신 최덕지 목사님의 손녀 김성권 권사님, 최목사님 유적지 방문을 도와 주셨던 최덕지 목사님의 설교 기록자 구은순 목사님과 부군 박성규 목사님, 강정우 목사님 그리고 최덕지 목사님과 옥중 동지(부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두 분은 옆방에 투옥되어 함께 찬송 부르며 예배드리다가 흑독하게 맞았다)이자 재건교회 목회 동역자였던 외조부 최달석 목사를 자주 방문하셨던 최목사님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증언해 주신 제 모친 최성례 권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논문을 꼼꼼히 읽고 귀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I. 서론: 최덕지의 교회재건 운동에 나타난 교회론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이 글은 한국 장로교 여성 가운데 최초로 목사안수를 받은 최덕지(1901-1956)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여 무너진 한국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해방직후에 전개한 교회재건 운동을 살펴보고, 그의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지금까지 교회사가들은 그의 교회론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오덕교와 양현혜는 김린희¹⁾와 최덕지 계열의 교회 재건운동을 각각 ‘극단적인 분파주의 운동’과 ‘극단적인 분리주의’라고 혹평했다.²⁾ 그 근거로 기성교단을 ‘사탄회’라 부르고, 기성교단과 절교한 것 등을 내세웠다. 안교성은 고신교회와 재건교회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고신의 경우 “혼합된 공동체 입장”을 취하므로 도나투스 운동에 비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재건교회는 도나투스주의 운동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³⁾ 이들과 달리 이상규는 재건교회의 긍정적 측면을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⁴⁾

-
- 1) 재건교회는 이북과 이남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출발하였고, 김린희는 이북에서 재건교회를 시작한 인물이다. 이남에서는 1946년 2월 부산 초량동에 있는 전상옥씨 집에서, 이북에서는 1946년 4월 평북 선전읍 황금동의 미곡창고에서 재건교회가 출발했다. 그로부터 2년 후 1948년 2월 8일 경남 동래군 기장면 대변리에서 남북재건교회가 하나의 교단으로 재출발했다. 김영균, “재건교회와 그 미래”(2016년 8월 14일 재건부산교회 70주년 기념강연문), 1.
 - 2) 오덕교, “칼빈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분열운동-신사참배 문제를 중심으로”, 『신학정론』 20/1(2002), 217; 양현혜, 『근대 한-일 관계사 속의 기독교』(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216.
 - 3) 안교성, “역사의 화해, 화해의 역사. 한국장로교역사의 새로운 이해”, 『한국교회사학회지』 30(2011), 311, n. 10.
 - 4) 이상규는 재건교회가 “해방 후 한국교회 형성과정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그 근거로 “철저한 회개운동, 일제하의 범과에 대한 분명한 반성, 우상숭배 타파” 그리고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막아주는 방파제의 기능”을 했던 예를 제시한다. 이상규, “한국교회사에 서 본 재건교회의 과제”, 『부경교회사 연구』 16호(2008).

하지만 위에 언급한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최덕지의 재건운동과 재건교회 설립과정에 나타난 교회론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그의 교회론에 관한 깊은 신학적 해석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⁵⁾ 본고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꾸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필자가 최덕지의 교회론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단순히 학문적 차원에만 있지 않고 필자 개인의 신앙의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필자는 신학대학원(M.Div.과정) 진학 이전까지 줄곧 재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중학교 시절부터 재건교회의 배타성에 대해 강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 후 세계 교회사 수업시간에 도나투스주의를 배우면서부터 재건교회와 도나투스파의 유사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장구한 세월이 지나 마침내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오래전의 염원처럼 본고는 최덕지의 교회론 연구를 위해 ‘도나투스파 교회론’을 해석학적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도나투스주의는 4세기 북아프리카에서 박해 시대에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치리를 표방한 사람들에 의해 생겨났다. 세계 교회사에서 박해와 배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도나투스주의 문제는 거듭 반복해서 나타났다. 일제의 박해를 경험한 한국 교회에서도 해방이후 최덕지와 같은 출옥성도들이 교회재건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에 도나투스주의 논쟁 상황과 유사한 논쟁이 재현되었다.

이 연구는 최덕지의 교회재건 운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의 분열된 현실의 뿌리 이해와 일치의 길 모색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교회가 직면하게 될 해방직후와 유사한 배교자 치리

5) 사실 지금까지 주류교단과 남성위주의 한국교회사 기술에서 최덕지와 재건교회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매우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최근까지 재건교회 연구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어 온 책은 다음과 같다. 최훈, 『한국교회박해사-한국재건교회사-』(서울:예수교 문서 선교회, 1979). 최근에 재건교회사 두 권이 출판되었다. 김정일, 『한국기독교 재건교회사 1938-1955』(서울: 여울목, 2016). 이 책은 저자가 숭실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을 보완 및 증보한 것이다. 재건총회역사편찬위원회, 『재건교회사』(부산: 재건총회출판부, 2017).

문제를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보인다. 동시에 이 연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지만,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도리어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교회개혁과 참된 교회 회복을 위한 길을 숙고하고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덕지의 생애를 해방 직전까지 비교적 자세히 다룬다. 그가 한국교회사에 남긴 긍정적 유산과 한계를 균형감각을 가지고 규명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전 궤적을 추적한다. 이어서 최덕지의 교회론 분석의 해석학적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나투스파 교회론을 소개한다. 이 주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아 1차 문헌과 2차 문헌을 폭넓게 연구하여 본고의 논지 전개에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한다. 이를 토대로 해방 직후 최덕지의 교회 재건운동과 재건교회 설립과정 그리고 그의 설교에 나타난 교회론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교회론이 오늘 한국교회에 주는 역사적 교훈을 찾아본다.

II. 최덕지의 생애(해방 직전까지)

최덕지의 생애 가운데 해방 직전까지만 먼저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⁶⁾ 첫째는 교육과정, 둘째는 여성운동과 민족운동 과정, 셋째는 신사참배 반대 투쟁이다.

최덕지는 1901년 통영군 향남면에서 출생하여 유교집안에서 예수를 믿기

6) 최덕지 목사 생애를 알 수 있는 전기 자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그의 뒤를 이어 재건운동을 계승해 나간 재건교회의 2세대 지도자였던 최종규 목사가 쓴 『이 한 목숨 주를 위해』(서울: 도서출판 진서천, 1981)이다. 이 책은 2016년에 송성안 역임으로 도서출판 바오에서 재발간되었다.

시작한 할머니와 어머니의 품에서 신앙으로 양육되었다. 윤정란의 연구에 따르면, 최덕지가 어린 시절을 보낸 향남동은 일제강점기 길야정으로 불렸던 곳으로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유곽이 형성되었던 지역이다. 윤정란은 이런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통영 길야정에서 최덕지가 성장하면서 민족문제와 여성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자연히 민족적 여성의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는 최덕지의 임종 때까지의 평생 기도제목이었던 ‘인신매매 공장 폐지’⁷⁾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한다.⁸⁾

1916년 최덕지는 통영 진명학교를 졸업하고 마산 의신여학교에 입학했다. 이 학교에서 그는 투철한 독립정신을 배웠고, 1919년 기미년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이 해에 최덕지는 호주 장로교 선교사 신애미(A.M. Skinner)가 원장으로 있던 통영 진명유치원 보모가 되어 어린이들에게 모세와 에스터를 가르쳐 독립정신을 심어주었다.⁹⁾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조직된 통영 애국부인회에서 최덕지는 서기를 맡았고 상해임시정부 자금 조달을 위해 솔선수범했다.¹⁰⁾

이듬해(1920년) 최덕지는 고성군의 독실한 기독교 가문 출신인 일본 동경 명치대학 법대생 김정도씨와 결혼하여 4년 후에 첫 딸을 얻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로부터 채 석 달이 지나기도 전에 열병으로 별세했다. 그는 남편과의 사별 2년 전인 1922년부터 통영교회 여전도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1925년에는 통영교회 기독교청년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여성운동과 청년운동에 헌신했다. 그리고 1929년부터는 근우회 통영지회 설립과 활동에

7) 최중규,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송성안 엮음(창원: 바오, 2016), 46.

8) 윤정란, “일제강점기 최덕지의 민족운동-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總神大論叢』, 1995, 56-57.

9) 최중규, 위의 책, 30-34; 신애미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보라. 정병준, 『호주 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사상과 한국선교 1889-1942』(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특히 143, 194, 237, 313, 333.

10) 같은 책, 34-35.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통영에서 여성 지도자로서 많은 활약을 했다.¹¹⁾

1932년에 최덕지는 위에서 언급한 호주 장로교 선교사 신애미의 추천으로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에 입학했다.¹²⁾ 이 학교에서도 최덕지는 리더십을 인정받아 학우회 회장이 되었다. 1935년에 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경남노회 마산구역 여전도사가 되었다. 이듬해 12월 9일 그는 조선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에서 경남여자성경학원 이사로 임명되었다.¹³⁾

1938년 9월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을 때, 최덕지는 선교사들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투신하게 되었고 한상동(1901-1976) 목사와 연계하여 본격적인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가 투옥되기 전까지 전개한 신사참배 반대 투쟁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계는 경남부인전도회 장악과 합법적 각 교회 순회 활동, 두 번째 단계는 교회와 학교 중심의 조직화작업, 세 번째 단계는 전 조선으로의 확대이다. 그리고 1940년부터 네 차례 투옥되었을 때도 금식기도와 예배를 통해 적극적인 옥중 투쟁을 이어나갔다.¹⁴⁾ 평양지방법원 예심 종결문에 나타난 신사참배 반대 투쟁 과정을 첫 단계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⁵⁾

최덕지는 경남노회 산하단체인 경남 부인전도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신사참배 거부운동 계획을 세우고 염애나의 집에 한상동과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갖고, 신사 불참배 신자를 임원에 당선시키기 위해 여성들을 조직했다. 1940년 3월 5일 부산 향서교회에서 모인 경남 부인전도회 임원 선거에

11) 윤정란, 위의 논문, 73.

12) 이 학교는 1923년 3월 평양 경창리에서 설립된 장로교 여성신학교육기관이었다. 교육과정은 목회학을 제외하고는 평양신학교와 같았다. 김인서, “여자고등성경학교방문기”, 『신학지남』 13/1(1931) 43. 윤정란, 위의 논문, 82에서 재인용.

13) 조선예수교장로회 경남로회 제 18회 회록, 1936년 12월 9일자. 윤정란, 위의 논문, 84에서 재인용.

14) 윤정란, 위의 글.

15) 소화 17년(1942) (예) 제 23호, 소화 18년 (예) 제 2호, 제 14호 최덕지 부분.

서 계획대로 최덕지가 회장에, 나머지 임원들도 모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당선되었다.¹⁶⁾ 회장으로 선출된 최덕지는 신사참배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교회여성조직으로서 유일하게 집단적 입장을 공격으로 선언한 경우이다.¹⁷⁾

최덕지는 그 해 4월 초순경에 진주부 봉래정에 있던 경남여자성경학교에서 여학생 30여 명에게 신사참배에 반대하도록 교육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사참배와 같이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사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어떤 시련에도 승리하게 된다. (중략)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니 국가 당국이 아무리 강제, 탄압 하더라도 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¹⁸⁾ 이를 안 경찰들이 학교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교육을 계속하자, 최덕지 전도사와 학생들을 마산경찰서와 진주경찰서에 구속하였다. 최덕지는 마산경찰서에서 석방된 이후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활발히 마산, 부산, 창원, 고성, 통영 등을 순회하며, 기도회와 설교를 통해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확산시켜나갔다. 그러다가 1942년 2월 다시 통영경찰서에 구속되었고, 경남 도경을 거쳐 1943년 1월 초 평양으로 이송되었다.¹⁹⁾ 당시 전국의 신사참배 반대 강성 투사들은 평양 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예배를 신앙의 생명으로 여겼던 최덕지 전도사는 옥중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네 차례의 예배시간(새벽, 오전 11시, 오후 3시, 저녁)을 묵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켰다. 이 때문에 일본 교도관들에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핍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박해를 견디고 이기기 위해 22일 장기 금식을 포함해 금식기도를 이어 나갔다. 당시 같은

16) 평양지방법원 예심종결문 14호 3항, 최종규, 위의 책, 207-208.

17)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어제와 오늘』(서울: 정우사, 1996), 163.

18) 평양지방법원 예심종결문 14호 8항, 최종규, 위의 책, 209.

19) 최종규, 위의 책, 96-109.

형무소에 투옥되어 있던 안이숙은 훗날 『죽으면 죽으리라』를 쓰고 옥중생활을 기록한 부분에서 ‘최덕지 선생’이라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그가 옥중에서 전개한 예배사수 투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안이숙은 최덕지 앞에서 느낀 경외심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나도 저 분같이 강했으면, 같이 찬송을 크게 부르고 같이 매를 맞고 같이 주리를 틀리고 같이 저주와 욕설을 받고 같이 애썼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겠으며 또 얼마나 큰 이적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을까 하고 나는 몇 번이나 생각하였다.

[중략]

최 선생은 그야말로 매 맞아 죽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아야 하니 그 얼마나 큰 고역인가. 그는 어찌면 여자로서 그러한 믿음을 받았던가. 그는 매를 맞아 죽으며 일본 귀신을 대적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혼자자 아니다. 그를 붙드신 분이 확실하게 그의 편이시다. 그 빛나는 눈, 얼굴, 태도 그것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로 하여금 그 별다른 것이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그 신기한 무엇을 보게 했다.²⁰⁾

그는 평양형무소에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옥고를 겪고 1945년 8월 17일 조국 광복 이틀 후에 출옥하였다. 1946년 겨울 부산으로 돌아와 숨질 때까지 신사참배로 무너진 한국교회 재건 운동에 투신하였다. 최덕지의 교회재건 운동에 나타난 교회론을 연구하기 전에 그 해석학적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나투스파 교회론을 살펴볼 차례이다.

III. 도나투스파 교회론

4세기의 북아프리카 교회는 308년과 311년 사이에 행해진 디오클레티아

20) 안이숙, 『죽으면 죽으리라』(서울: 신망애사, 1968), 283-284.

누스 황제 박해 이후에 교회 분열을 경험했다. 이 분열은 박해시기에 성서나 성물을 넘겨주고 배교했던 자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재수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박해시기의 배교자들을 공개적 참회와 제세례를 받은 후에 교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도나투스파와 일치를 위해 관용을 강조한 ‘가톨릭파’²¹⁾가 분열했다.

‘도나투스파’라는 명칭은 ‘가톨릭파’가 자신들의 반대파에 붙인 것으로 이 파의 두 번째 지도자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 엄격한 치리를 강조한 이 파는 가톨릭교회가 선출한 카르타고 주교 카이킬리아누스가 배교자의 손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안수가 무효라 주장하고 마요리누스(+313)를 주교로 선출했다. 마요리누스 사후에 도나투스가 두 번째 주교로 선출되었다. 도나투스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여 ‘엄격한 치리파’ 그룹을 ‘도나투스파 교회(Donatist Church)’라는 조직된 제도로 변화시켰다. 그는 30년간 도나투스파 교회 지도자였고, 황제를 설득하여 347년 카르타고의 유일 주교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²²⁾

그런데 도나투스파의 교회론을 연구하는 데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도나투스파의 원 저작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가톨릭파 입장을 대변하는 저자들의 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²³⁾ 최근 연구는 이런 문헌에 포함된 가톨릭 편견을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도나투스파의 관점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한 시도를 보여준다.

21) 도나투스주의 논쟁에 대한 최근 연구는 남아 있는 대부분의 자료가 가톨릭 문헌임을 고려하여 역사비평적 시각으로 ‘가톨릭’의 편견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자칭 가톨릭파’라 부르기도 한다. Tilley 1996, Deam 2004, Evers 2010, 특히 3장과 4장, Evers 2011.

22) S. Füsti-Molnár, *Ecclesia sine macula et ruga. Donatist Factors among the Ecclesiological Challenges for the Reformed Church of Hungary especially after 1989/90*(Debrecen: Kapitalis Printing House, 2008), 38.

23) 우리가 도나투스파에 대해 아는 것은 교회가 에우세비오스, 밀라(현 알제리에 위치한 도시)의 감독 옵타투스(Optatus of Milevis, 397년 이전 사망), 그리고 힘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354-430)의 진술을 통해서이다.

도나투스파 교회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나투스파와 가톨릭파 사이의 논쟁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도나투스주의 논쟁의 역사적 배경

도나투스주의에 대한 사회경제사적 연구의 분수령을 이룬 프렌드(W.H.C. Frend)의 연구에 따르면 도나투스파와 가톨릭의 분열은 민족적, 사회, 경제, 기후 문화적 배경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²⁴⁾ 도나투스파 교회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론 전통을 강하게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3세기와 4세기에 북아프리카 교회는 라틴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테르툴리아누스(c.155-c. 240), 키프리아누스(200-258),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모두 북아프리카 교회 출신으로 교회사 초기 신학 형성에 중요한 공헌을 한 대표적 인물들이다.

그런데 북아프리카 교회는 로마제국 안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카이사르 숭배에 대해 더 적대적이었다. 이런 특징을 가졌던 북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론 전통은 교회를 세속 사회의 대안적 공동체로 보았다. 특별히 테르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도나투스파는 바로 이 전통의 계승자였다.

반면에 바다 너머 로마교회의 전통을 따르던 북아프리카 가톨릭 교회에서는 박해가 종식되던 312년 이후에 제국과의 관계가 변화되어, 가톨릭교회와 로마제국은 동맹관계로 이해되었다.²⁵⁾ 이 입장을 가장 비타협적인 형식으로 표현한 이는 밀라의 주교 옵타투스(Optatus of Milevis, 397년 이전

24) W.H.C. Frend, *The Donatist Church. A Movement of Protest in Roman North Africa* (Oxford: Clarendon Press, 1952).

25) W.H.C. Frend, *op.cit.*, 324-326.

사망)였다. 그는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도나투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가 국가, 즉 로마제국 안에 있다.”²⁶⁾ 이 주장에서 우리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의 공인(313년) 이후 가톨릭교회가 제국에 종속되는 모습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도나투스와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간주되는 티코니우스(Tyconius)²⁷⁾가 313년 이후의 로마 교회의 역사적 전개를 ‘악마적 쇄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교회의 세속화’라 부르게 만들었을 것이다.²⁸⁾

도나투스파와 가톨릭의 논쟁의 이런 역사적 배경 이해를 토대로 해서 본고의 주된 관심사인 교회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 도나투스파의 교회론: 교회의 표지(notae ecclesiae)를 중심으로

무엇이 교회를 다른 공동체로부터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가? 381년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참된 교회를 정의하는 데 결정적인 네 가지 표지가 나타난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하나의 교회, 즉 일치,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바로 교회를 다른 공동체와 구분시켜 주는 고전적인 교회의 표지(notae ecclesiae)이다.

381년 이전 여러 고대교부들이 전개한 교회론에서는 이 네 가지 표지가 단편적으로 나타났다.²⁹⁾ 도나투스파가 존경한 모델이었던 주교이자 순교

26) Optat de Milève, *Traité contre les donatistes* III, 3(Paris: Cerf, 1996. Sources chrétiennes 413-2), 23.

27) 티코니우스의 생몰 연대는 알려지지 않고, 저술 시기는 364/367 ~ 395년으로 추정된다.

28) R. A. Markus, *Saeculum: History and Society in the Theology of St. Augustin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115.

29) 이형기, 『교회론의 패러다임 전환』(서울: 여울목, 2016, 449.

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박해가 끝난 이후에 배교자 치리 문제에 엄격주의 입장을 가져 타락한 자들을 속죄와 회개 없이 교회에 재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교회에 매우 위험하다고 믿었다. 이것은 그가 교회의 네 표지 가운데 기록성을 일차적으로 강조했음을 보여준다.³⁰⁾

키프리아누스의 가르침을 추종했던 도나투스파는 ‘흠이나 구김이 없는’ (엡 5: 27) 거룩한 교회를 추구했다. 순교자 키프리아누스를 모델로 삼았던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도나투스파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 박해시의 순교자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고, ‘순교자의 교회’로서의 자의식을 가졌었다.³¹⁾

도나투스파는 교회의 기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변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악을 피하기 위해 그들과 절교했다.³²⁾ 교회는 ‘진정한 포도나무’이고 따라서 포도나무처럼 철저하게 전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도나투스파의 입장이다.³³⁾

게다가 열광적인 도나투스파 신자들은 ‘불결한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을 물리적인 형태로도 표현하여 회반죽을 칠해서 가톨릭교회 예배당을 정화하는가 하면 다른 제단들을 파괴하기도 했다.³⁴⁾

30) S. Füsti-Molnár, *Ecclesia sine macula et ruga. Donatist Factors among the Ecclesiological Challenges for the Reformed Church of Hungary especially after 1989/90*, Debrecen: Kapitalis Printing House, 2008, 38.

31) *Ibid.*, 249. 최근 연구는 박해시기 이후의 도나투스파의 정체성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변천했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M. A. Tilley, “Sustaining Donatist Self-Identity: From the Church of the Martyrs to the Collecta of the Desert”,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5/1), 1997, 21-35; 이현준,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나투스주의의 교회론 비교 연구”, 『신학연구』 63(2013).

32) Augustinus, *C. Ep. Parm* 2, 21, 40. P. Brown, *Augustine of Hippo*, 2000; 한글번역본: 『아우구스티누스』, 정기문 옮김(서울: 새물결 출판사, 2012), 315에서 재인용.

33) J.P. Brisson, *Autonomisme et christianisme dans l'Afrique romaine*, 1958, 123-153. *Ibid.* 303, n. 14에서 재인용. Brisson의 책은 도나투스파 현상 연구에 대한 종합을 시도하고 있다.

34) Optatus of Milevis, *de schism. Don.* 6, 1-3. P. Brown, *op.cit.*, 한글 번역본, 310에서 재인용.

기록성의 주관적 차원을 강조한 도나투스파는 타락한 성직자가 집례하는 성례전은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이점에서도 도나투스파는 키프리아누스의 입장을 따른다.³⁵⁾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역사적 실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록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며 성례전의 타당성에 대한 도나투스파의 관점을 비판한다. 그는 성례전의 타당성이 집례하는 성직자의 주관적 기록성과는 무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례된 성례전은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도나투스파가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로 기록성을 강조한 것과 대조적으로 가톨릭파가 강조한 표지는 “전 지구에 확산되어 있는 교회(*ecclesia toto orbe diffusa*)”, 즉 보편성이었다. 가톨릭파에게 교회의 보편성은 세계 교회와의 일치와 교제를 의미했다. 가톨릭파의 입장을 대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와 마찬가지로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지만 밀라노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과 그의 지적 편력 배경과 무관하지 않게 그의 교회론은 아프리카 지역 교회론을 넘어서서 세계시민적 성격을 가졌었다.

그런데 보편성 이해에 있어서도 도나투스파는 가톨릭과 다른 관점을 가졌다. 도나투스파에게 보편성은 “성례전에 있어서 온전한 것, 완전한 것, 흠이 없는 것”을 의미했다.³⁶⁾ 이러한 도나투스파의 보편성 개념은 순수성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편성’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과는 거리가 있다. ‘보편성’이라고 우리말로 옮긴 단어의 형용사형 ‘가톨릭(*Catholic*)’은 그리스어 ‘카타 홀론(*κατὰ ὅλον*)’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체에 따르면’을 의미한다. ‘가톨릭교회’라는 표현은 교회사에서 여러 용례로 사용되었으

35) Cyprian, *Ep.* 65, 4, 1. *Ibid.* 303에서 재인용.

36) *Gesta collationis, Breviculus collationis, Ad Donatistas post collationem* Gesta, III, 102: “Catholicum nomen putant ad prouincias uel ad gentes referendum...sacramentis plenum est, quod perfectum, quod immaculatum”(“그들은[가톨릭은] 보편성이라는 이름을 지방 혹은 민족들과 관계된다고 평가한다. ...보편성이라는 이름은 성례전에 있어서 온전한 것, 완전한 것, 흠이 없는 것을 지칭한다); R. A. Markus, *op. cit.*, 113.

나, ‘가톨릭’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일차적으로는 지역교회와 대비되는 ‘모든 곳의, 모든 시간의, 모든 사람들의’ 보편 교회를 의미한다.³⁷⁾

하지만 도나투스파 가운데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던 티코니우스는 보편성 개념에 있어서 가톨릭파의 해석을 선호하여 도나투스파에서 단죄되었다. 그럼에도 티코니우스는 가톨릭파가 되지는 않았다. 이 점은 그의 성서해석 규칙과 신학에 영향을 받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속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티코니우스가 가톨릭파가 되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아마도 가톨릭파가 국가에 동료 그리스도인인 도나투스파를 박해하라고 호소한 것에 혐오감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마르쿠스는 추정한다.³⁸⁾

이와 같이 도나투스파와 가톨릭파는 거룩성과 보편성 개념에 있어서 상이한 이해를 가졌지만 양쪽의 교회론은 모두 하나의 같은 원리, 즉 “하나의 교회(*una ecclesia*)가 있다”에 기초한다. 아프리카에서 경쟁하던 이 두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유일한 참된 교회라 주장했다. 도나투스파에게 거룩한 교회는 순교자들의 교회, 혹은 부정한 적들 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모임(*collecta*), ‘제의적으로 순수한 모임’³⁹⁾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흠이나 구김이 없는”(엡 5: 27) 교회는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된다. “밀과 가라지의 분열이 이뤄졌다. ...주님의 발은 아프리카에만 남아있다.”⁴⁰⁾ 거기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자들의 당”에서 분리될 줄 알았기 때문이다.⁴¹⁾

37) 교회사에서 나타난 ‘가톨릭’의 다양한 용례는 다음 사전에 잘 나와 있다. F.L. Cross and E. A. Livingstone(ed.),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Oxford University Press, 3rd edition revised, 2005, 308.

38) R. A. Markus, *op. cit.*, 115-116.

39) M. A. Tilley, 위의 논문, 23-29.

40) Augustinus, *Contra epistulam Parmeniani*, II, II, 5.

41) 고전 5: 9-13.

세계의 나머지 부분의 주교와 신자들은 아프리카 배교자들(traditores)과의 교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참된 교회에서 배제되었다.⁴²⁾ 이런 도나투스파의 주장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하늘의 구름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전 우주에 세워져 있음을 우리에게 소리친다. 그런데 습지의 개구리들은 우리에게 감히 말한다: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이다.”⁴³⁾

가톨릭파 주교인 유타투스과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에 있는 현재의 교회(ecclesia talis nunc est)는 도나투스파가 말하는 것처럼 ‘흠이나 구김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 죄인과 의인이 함께 있는 “혼합체(corpus permixtum)”임을 강조했다.⁴⁴⁾ 게다가 유타투스는 일치를 파괴하는 분열이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연합으로 이끌기 위해 애썼고 도나투스파 주교들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이는 그가 상호 대면이 일치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나투스파는 그의 초대에 잘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가톨릭파는 황제에게 비교토론회(collatio) 개최를 제안했고, 황제가 이 제안을 수용하였다. 결국 호노리우스 황제의 명령으로 411년 카르타고에서 가톨릭파와 도나투스파의 비교토론회가 열렸고⁴⁵⁾, 도나투스파 주교 285명과 그 반대파, ‘자칭 “가톨릭”파’(self-proclaimed “catholic” party) 주교 286명이 참석했다.⁴⁶⁾

42) Frend, *op. cit.*, 166-167.

43) Augustinus, *Enarr. in Ps.* 95, 11.

44) Optat de Milève, *Le traité contre les donatistes*, t. 1(Paris: Cerf, 1995), SC 412, 100-121;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ana* III, 32, 45. 교회가 의인과 죄인의 혼합체라는 관념에 있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티코니우스의 『규칙서』에 나오는 두 번째 규칙에 영향을 받았다.

45) *Actes de la conférence de carthage en 411*(Paris:Cerf, 1972), SC 194, 9-34.

46) A. Evers, “Augustine on the Church(Against the Donatists), in: *A Companion to Augustine*, edited by Mark Vessey ; with the assistance of Shelley Reid(Wiley-Blackwell, 2012), 375.

이 비교토론회와 그 이후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서 발견되는 양쪽 교회론의 성서적 근거와 그에 대한 양쪽의 신학적 해석을 살펴보는 것은 도나투스파 교회론의 성서적이고 신학적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3. 도나투스파 교회론의 성서적 근거와 그에 대한 비판적 해석

411년 카르타고 비교토론회(*collatio Carthaginensis*) 회의록은 가톨릭파와 도나투스파 양쪽 진영 모두 수많은 성서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첫째 회기의 가톨릭파 입장 낭독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교회는 가라지가 추수 때에 좋은 곡식과 분리될 때까지 혹은 밀로부터 지푸라기가 키질 될 때까지 악인들과 섞여 있을 것이라 예언되었기 때문이다. [...] 우리는 자비로운 일치 정신으로 오히려 선인들 때문에 악인들을 관용해야 한다.”⁴⁷⁾

하지만 도나투스파 주교 하베트데움(*Habetdeum*)은 비교토론회 세 번째 회기의 258절에서 도나투스파의 관점을 명료하게 요약하면서 가톨릭의 가라지 비유 해석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그의 비판의 요지는 주님 자신이 이 비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면서 밭은 세상이라고 밝혔는데, 가톨릭파는 밭을 교회라고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서에서 부정한 것을 정한 것에서 분리해야 함을 보여주는 많은 성서 구절(레10:9-10; 겔 22: 26. 렘23:28 등)을 인용하고 가톨릭파를 비판한다. 즉 가톨릭파는 성령에 의해 약속된 교회의 순수성에 관한 이 수많은 중요한 증거를 무시하면서 악인들이 선인 한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⁴⁸⁾

47) *Actes de la conférence de carthage en 411*, I, 55, Paris: Cerf, 1972, SC 195, 657.

48) *Actes de la conférence de carthage en 411*, III, 258, Paris: Cerf, 1975, SC 224, 1195-1219.

아우구스티누스는 411년 비교토론회 이후에 쓴 자신의 저서 『비교토론회 이후 도나투스파에게』(*Ad Donatistas post collationem*)에서 도나투스파가 인용한 성서구절들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그들이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도나투스파가 자신의 파와 가톨릭파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성서의 증언을 서로 대립시키고, 성서의 두 증언의 일치(*concordia*)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은 두 그룹의 성서 증언을 모두 수용하고 그들의 일치를 증명했다고 자부한다.⁴⁹⁾

이 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먼저 도나투스파가 인용하는 성서 구절, 즉 악인들의 혼합으로부터 순수한 교회를 말한 것은 지상 위의 현재의 교회가 아니고, 영원한 삶에서의 미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는 수확 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둔 가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라는 도나투스파의 주장은 도나투스파가 모델로 삼는 순교자 키프리아누스가 생각한 것보다도 대립된다고 말하면서 그의 글을 인용한다. “교회 안에서 가라지의 현존을 지적하는 것은 쓸모없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도록 방해받아서 안 된다.”⁵⁰⁾

게다가 hippo의 주교는 도나투스파가 비교토론회에서 가톨릭파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한 그물에 잡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해안까지 함께 끌고 가는 것은 그물이 바다에 잠겨있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며,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숨은 악인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성인들의 모임에서 분리될 것이라 주장한 것을 상기시킨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 도나투스파 주교들이 비록 ‘숨은 악인’이라는 말을 덧붙이더라도 교

49) *Ad Donatistas post collationem*. VIII, 11, BA 32, 273.

50) Cyprianus, *Epist.* 54, 3, CSEL 3-7, 622.

회 안에 악인이 선인과 세상 끝까지 섞여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 해석하며 도나투스파 주교들이 진리의 명증성에 의해 설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⁵¹⁾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성서의 모순되어 보이는 두 증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화롭게 이해될 수 있다. 즉 가라지와 밀의 공존은 의인과 죄인의 혼합체(*corpus permixtum*)인 지상 위의 현재 교회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순수한 것과 부정된 것의 분리와 ‘흠도 구김도 없는 교회를 말하는 성서 구절은 종말 이후의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이다.⁵²⁾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변한 가톨릭파의 입장은 411년 카르타고 비교토론회에서 이겼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도나투스파 모임은 강압적으로 해산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도나투스파는 가톨릭파와 나란히 7세기에 이슬람이 북아프리카를 장악할 때까지 남아 있었다.

4. 도나투스파 교회론의 요약 및 평가

도나투스파 교회론의 주된 특징은 교회의 네 가지 표지 가운데 거룩성을 가장 중요한 표지로 삼는 데 있다. 도나투스파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조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죄의 오염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주장했고 이를 위해 악행하는 이들과 절교했다.

둘째, 첫째 사항의 논리적 귀결로서 교회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하는

51) “오 진리의 폭력(*o uiolentia ueritatis*)! 진리는 그 대적자들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고문하여 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고백하게 만드는구나.” *Augustinus, Ad donat. post conl.* X. 13, (Paris: DDB, 1965), BA 32, 277.

52) “그러므로 사태는 명료하다. 오직 미래 세대에, 심판 후에, 어떤 무할레자도, 어떤 부정한 자도 교회 안으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이사야 52, 1).” *Ibid.*

것처럼 죄인과 의인의 혼합체가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⁵³⁾ 물론 힝포의 주교도 미래 천상의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임을 인정한다. 반면에 도나투스파는 지상의 교회에서도 타락한 자들의 치리와 교정과 절교를 통해 죄인과 분리할 것을 강조한다.

셋째, 도나투스파의 기록성의 추구는 물리적 형태로도 표현되어 부정한 예배당에 회반죽을 칠하거나 부정한 제단을 파괴하기도 했다.

넷째, 도나투스파의 교회의 기록성 개념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 이해에 반영된다. 즉 교회는 세상과 대립적인 관계이며 따라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진 도나투스파 교회론을 기존의 일방적인 부정적 평가를 넘어서서 보다 균형 잡힌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교회론이 나온 구체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이 측면에서 기념비적 연구를 남긴 프렌드(Frend)는 도나투스파와 가톨릭파의 가장 큰 차이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다고 본다. 즉 도나투스파는 가톨릭과 달리 교회와 세상을 상호배타적인 두 영역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교회와 국가의 유착으로 교회가 세속화됐던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체적 역사적 상황에서 교회의 세속화를 피하고 기록성을 추구한 도나투스파의 교회론을 이해할 때, 그 정당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도나투스파가 치리와 교정을 통해 지상의 교회에서부터 머리아신 그리스도의 기록성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기록성을 추구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53) 최근 몇몇 연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를 마치 도덕적 완전주의 교회론을 내세운 것으로 묘사한 것은 일종의 과장 내지는 왜곡임을 밝히고 있다. 이현준 240; R.B. Eno, "Some Nuances in the Ecclesiology of the Donatists", in *Revue des Etudes Augustiniennes*, 1972, 46-50.

하지만 도나투스파는 교회의 거룩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나머지 죄인에 대한 관용과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보편교회와의 일치 추구에 있어서는 취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배도자(traditores)와 관계가 있는 모든 교회와의 교제를 거부함으로써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표지인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특징을 가진 도나투스파 교회론에 비추어 최덕지 목사의 교회재건 운동에 나타난 교회론을 살펴볼 차례이다.

IV. 최덕지의 교회재건 운동에 나타난 교회론 연구

최덕지의 교회론을 연구하기 위해 현재 연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덕지의 교회재건 운동과 재건교회 형성과정 그리고 그의 설교집에 나타난 교회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방직후 한 국교회 재건운동을 둘러싼 갈등상황과 그 속에서 최덕지가 선택한 교회재건 운동노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해방직후 한국교회 재건운동을 둘러싼 갈등

1945년 8월 15일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출옥한 성도들은 한국교회 재건 운동에 앞장섰다.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기철 목사가 목회하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 모여 약 2개월간 머물면서,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⁵⁴⁾ 이런 과정을 거쳐 1945년 9월 20일 한국장로교회 재건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54) 김인수, 『한국기독교교회의 역사』 (하)(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554.

다.⁵⁵⁾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 11월 14일 평북 6노회 교역자 200명이 선천군 심천면 월곡동 교회(홍택기목사 시무)에서 모인 목사 퇴수회에서 교회재건 원칙을 발표했을 때 이 원칙을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결을 할 때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의 반대 발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생활을 했거나 혹은 은퇴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의 강제에 할 수 없이 굴한 사람의 노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⁵⁶⁾

이러한 홍택기의 발언은 신사참배에 굴복한 것에 대한 회개는커녕 “일제의 강제에 할 수 없이 굴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서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며 심지어 치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해방 직후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한국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이상승배죄를 회개하고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막중한 과제 앞에서 한국교회는 회개와 치리 방법을 두고 서로 갈등하며 분열의 길에 빠져들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첫째 그룹은 위의 홍택기 발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제에 부여한 것을 합리화하며 자신들의 교권 유지에 급급했던 교권파(일명 총회파), 둘째 그룹은 배교한 기존교회와 단절하고 새로운 재건교회를 설립한 재건파, 마지막으로 기존교회 안에서 이상 앞에 무릎 꿇고 범죄한 죄를 회개하고 교회개혁을 수행하고자 했던 고신파가 그것이다. 두 번째 그룹의 지도자였던 최덕지와 셋째 그룹의 대표자였던 한상동은 동년배로서 위에서 본 것처럼 둘 다 경남 출신의 신사참배 반대 투쟁의 동지였으나 해방 후 교회재건의 길에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55)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10년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45.

56)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한국민족교회 형성 과정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514.

2. 최덕지의 교회재건 운동과 재건교회 설립

출옥 후 최덕지와 한상동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남노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출옥성도들이 가장 많았던 경남노회는 1945년 9월 18일 부산진 예배당에서 경남 재건노회로 모였고, 11월 3일 제47회 경남노회가 정식으로 개최되어 출옥성도 주남선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듬 해 48회 경남정기노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가결한 총회 때 부총회장이었고, 해방 후 신사참배 참회주간의 자숙행사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불참했던 김길창이 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누가 보더라도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다.⁵⁷⁾ 노회장이 된 김길창은 앞선 정기노회의 결의를 뒤엎고 고려신학교 인준을 취소해 버렸다.

이런 경남노회의 처사에 항의하면서 최덕지와 한상동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 최덕지는 기존노회와 기성 장로교회를 버리고 밖에서 교회재건 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상동은 기성노회와 총회 안에 남아서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기성교단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도 결국 고신 교단을 세웠다.⁵⁸⁾

신앙의 동지였던 최덕지와 한상동의 결별 원인은 교회재건 방법의 차이에 있었다. 최덕지는 “밖에서 불러내자”고 주장했고, 한상동은 “안에 들어가 건지자”라고 말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재건 방법에 대해 논쟁할 때 최덕지도 처음에는 기성교회 안에 들어가 교회재건을 위해 일해 보려고 몇 번이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기다렸으나, 끝내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세력이 너무나 강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결국 밖에서 회개 운동을 전개했고 마침내 ‘재건교회’라는 독립교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57) 양낙홍,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272.

58) 고신 교단 형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보라. 이상규, “해방 후의 상황과 고신 교회의 형성”, 『고신신학』 10(2008), 155-201.

한국교회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고, 교회의 많은 남성 지도자들이 탐욕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일제의 탄압을 두려워하던 시대에 최덕지는 생명을 건 금식기도로 준비하여 신사참배, 동방요배,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거부했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신앙과 실천으로 일제의 폭압 앞에 항거했던 그는 해방이후 회개보다 교권 장악에 열을 올리던 교권주의자들과 타협할 수 없었다. 그는 우상숭배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아 ‘사단의 회’가 된 곳에 남아 있을 수 없다고 하며 밖으로 나와 재건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본래 최덕지의 목적은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재건운동에 동참하는 교회와 교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단 설립이 필요해졌다. 회개와 자숙의 기간으로 정한 3년이 지나고 1948년 2월 18일 동래군 기장면 대변리 대변교회에서 예수교장로회 재건교회 임시중앙위원회가 소집되어 30개 교회의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⁵⁹⁾ 중앙위원회 회장에 강상은 목사, 부회장에 최덕지 전도사가 선출되었고, 중앙위원회 규약과 재건운동의 목표인 3대 주의와 5대 강령이 채택되었다. 3대 주의와 5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3대 주의: 1. 여호와께만 충성하자. 2. 철두철미 회개하자. 3. 깨끗한 성전을 지어 바치자. 5대 강령: 1. 한국교회는 완전 재건하자. 2. 마귀당은 일절 버리자. 3. 불의와 위선에는 절교하자. 4. 우상은 일절 타파하자. 5. 너도 나도 재건운동가가 되자.

제1회 모임에서 명칭을 ‘예수교 장로회 재건교회’라고 했다가, 제2회 모임에서는 ‘예수교 재건교회’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무슨 교단이나 별도의 조직체를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파를 막론하고 회개하고 재건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장로교, 감리교 등 교파마다 재건교회가 생길 수 있으니, 장로교를 빼고 예수의 이름 아래 연합된 재건운동을 전개

59) 김영균, “재건교회와 그 미래”, 2016. 8. 14 재건부산교회 70주년 기념강연문, 1.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⁶⁰⁾

최덕지는 그 이후에 전국적 집회를 인도하며 교회 재건운동을 전개해 나가다가 1951년 4월 3일 부산교회당에서 소집된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명예 목사에 추대되었다. 그 당시 총회장인 강상은 목사는 “여자에게 목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덕지 선생에게 준다. 승리의 종이니 앞으로 50년 후 1백년 후에 이런 인물이 나면 몰라도” 라고 말했다.

그 후 1952년 5월 13일 재건부산교회당에서 중앙위원회는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역사적인 예수교재건교회 남한지방회가 발족되었다. 1955년 5월 4일 제4회 남한 지방회 셋째 날 최덕지 목사는 강상은 목사에 의해 안수를 받고 명예 목사에서 안수 목사가 되었다.⁶¹⁾ 당시 장로교 헌법에는 여성 안수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여성 안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자 강상은 목사는 최덕지 목사 같은 이는 기독교 역사상 또는 성경인물 중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니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최덕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오늘 이 총회 석상에서 나 일개인 최덕지에게 목사 안수한다면 안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성직을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진리냐 아니냐,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에서 우리는 현대 페미니즘 신학자들의 외침을 듣는 것 같다. 그때 여러 사람들의 찬반토론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헌법 기초위원으로 강상은, 최덕지, 김영숙 등을 위촉하여 목사, 장로, 집사에서 남자를 삭제하고 남녀모두에게 안수 가능하도록 헌법을 수정했다.⁶²⁾ 당시 재건교회 총회에서는 1934년에 수정된 한국장로교회헌법을 모범으로 삼아 교직자들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부분을 남녀로 수정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여 같은 날 최덕지, 김영숙, 김소갑숙이

60) 최종규, 위의 책, 133.

61) 예수교 재건교회 제 4회 남한 지방회 회의록.

62) 최종규, 위의 책, 144.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다. 세 사람은 모두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 출신이었다. 이렇게 해서 재건교회는 한국장로교회 역사에서 여성 안수를 가장 먼저 제도화시켰다.

지금까지 살펴본 최덕지의 해방 직후 교회 재건운동과 재건교회 설립 과정에 나타나는 교회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차례이다.

3. 최덕지의 교회재건 운동과 재건교회 설립과정에 나타난 교회론

해방 이후 최덕지가 전개한 교회재건 운동과 재건교단 설립과정은 최덕지의 재건운동의 주된 목적이 회개운동이었고 교회회복이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재건운동의 동참자 수가 늘어나 조직의 필요성이 생겨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을 때, 그 목적이 ‘재건교단’이라는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교회의 재건임을 모임의 명칭 변경을 통해서도 천명했다. 처음에 ‘예수교 장로회 재건교회’라 정했던 것을 ‘예수교 재건교회’로 변경한 것은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등 모든 교파가 회개운동에 연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중앙위원회에서 교회재건의 목표로 제시한 3대 주의와 5대 강령은 더욱 뚜렷하게 재건운동의 목표가 새로운 교단 창립이 아니라 회개운동이었음을 보여준다. 3대 주의를 구성하는 세 항목은 재건운동의 목표가 이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이상숭배 장소로 전락한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5대 강령은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최덕지는 회개운동과 교회재건 방법에 있어서 기성교회와 분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기성교회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여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사단의 회’가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최덕지의 발명품이 아니고, 당

시 한국 장로교가 사용하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교회론을 다루는 25장의 다섯 번째 항목에 나타난다. 그 내용은 천하에 있는 가장 순결한 개별 교회도 혼탁하고 과오를 범하며, 어떤 교회들은 너무 타락하여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당(Synagogues of Satan)’”이라는 것이다.⁶³⁾ 한 마디로 최덕지의 입장에서는 기성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므로 그가 재건운동을 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최덕지의 선택은 과연 교회론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당시 구체적 역사적 맥락을 떠나 추상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이다. 최덕지와 달리 기성교회 안에 남아 재건운동을 전개하려던 한상동도 결국 노회를 탈퇴하도록 몰아간 것은 신사참배 선두에 섰었고, 신사참배 참회주간의 자숙 행사마저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불참했던 김길창이 1946년 12월 3일 제 48회 경남정기노회 노회장직으로 당선되고 신사참배자들이 노회 임원직을 장악하여 고려신학교 인준을 취소했던 것이다.⁶⁴⁾ 당시 이들은 회개운동을 강조하는 이들을 ‘독선주의’와 ‘바리새주의’로 비판하며 회개운동을 막기까지 했다.⁶⁵⁾

교권주의자들의 행태가 아무리 이러했다 하더라도 과연 회개운동과 교회재건을 위한 최선의 길이 최덕지가 선택한 것처럼 기성교회 밖으로 나가

63) 이형기 편저, 『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285. 이 책에 번역된 원문은 1958년 개정판이다. 거기서는 1647년 원문에 나타나는 ‘사단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기 같기까지 하다”로 수정되어 있다. 최덕지가 이 신앙고백문의 교회론을 참고하고 사용한 것은 아래에서 분석할 그의 설교집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사용했을 당시에는 개정 이전이므로 ‘사단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64) 양낙홍, 『한국장로교회사: 형성과 분열과정·화해와 일치의 모색』(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271-272; 김길창의 친일행적과 반민특위 재판기록은 다음 책을 참조하라. 김승태,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서울: 다산글방, 1994), 238-248; 452-501.

65) 김양선, 위의 책, 151-52.

는 것이었을까? 해방 후 출옥하여 교회재건을 위해 애썼던 이원영과 주남선, 그리고 손양원은 동일한 상황에서 끝까지 기성교회 안에 남아 교인들과 함께 회개운동을 전개했다.⁶⁶⁾ 이들은 교권주의자들의 회개 거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출옥 성도들에게도 자만과 ‘유대교적 율법주의’의 위험을 경계할 것 그리고 정죄보다는 일제의 탄압 속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며 수난당한 성도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할 것을 권고했다.

교권주의자들의 회개 거부에도 불구하고 기성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안에 머물러 회개와 교회재건 운동을 전개한 이들의 길이야말로 교회의 분열을 막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당시 구체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책임은 교권주의자들에게 있다. 하지만 기성교회를 나가 재건운동을 전개한 최덕지와 한상동도 교회분열의 책임에서 전적으로 면제되기는 어렵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회개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심지어 가로막는 이들과 함께 기성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기성교회 밖으로 나가 재건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들의 본래 의도는 아니었지만 교회 분열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덕지의 재건운동에 대한 교회사가들의 ‘극단적인 분리주의’ 혹은 ‘극단적인 분파주의’라는 평가는 그 당시 구체적 역사적 상황과 최덕지의 교회재건운동이 추구한 목적을 제대로 고려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의 교회론이 도나투스파 교회론의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의 설교를 분석하고자 한다.

66) 임희국, 『선비목사 이원영』 (파주: 조이웍스, 2014), 211-212, 264-265; 심근식, 『해와 같이 빛나리』(주남선 목사 전기), 260. 김영재, 『한국교회사』, 245에서 재인용; 안용준, 『사랑의 원자탄-손양원 목사의 순교 일대기』(서울: 성광문화사, 2009(개정판)), 536. 손양원은 재건파에서 함께 회개운동을 하자는 최덕지의 권면을 받았을 때, “주님도 나 같은 죄인이 사는 이 땅 위에 오셨는데 내 어찌 세상을 버리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이신데 내 어찌 현실 교회를 마귀당이라 하여 절연하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4. 최덕지의 설교에 나타난 교회론

최덕지 목사의 설교집 『모든 것 다 버리고』⁶⁷⁾는 출옥성도의 딸인 구은순(1935-현재)이 1950년대 초반 최덕지 목사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면서 그의 설교를 속기해 두었던 것을 거의 25년 후에 엮어 출판한 것이다. 필기 과정에서 필기자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전승양식의 한계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⁶⁸⁾ 이 설교집 안에 포함된 설교 수는 모두 49편이고 교장 훈사 1편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들 가운데 날짜가 표기된 것은 21편이고 나머지는 날짜가 누락되어 있다. 날짜 표기가 있는 설교의 연대는 52년에서 57년 3월 사이에 펼쳐져 있다.⁶⁹⁾

49편의 설교 가운데 구약성경을 본문으로 사용한 것이 29편이고 신약을 사용한 것은 20편이다. 그의 설교 안에는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저항 옥중 투쟁 간증과 6.25 전쟁 시기의 경험과 자유당의 부패한 정치상 비판 등 당대의 생생한 역사적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 49편의 설교 가운데 본고의 주제인 그의 교회론적 특징을 보여주는 내용을 몇 가지 문제로 나누어 정리한다.

① 교회란 무엇인가?

1952년 함안군 대산면 부목교회 부흥회에서 계 2:1-7을 본문으로 ‘에베 소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최덕지는 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67) 이 책은 서울 소재 출판사였던 소망사에서 1981년에 출판되었다. 분량은 284쪽이다.

68) 많은 작품들이 수강자의 필기(reportatio)에 의해 전해지던 것이 관행이었던 13세기에 나온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도신경 강해설교』도 비서의 필기로 전해져 왔지만 연구자들 사이에 그의 진정 작품이라는 점에 대해 논란이 없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사도신경 강해설교』, 손은실 옮김(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31.

69) 최덕지의 사망연대가 56년인 것을 감안하면, 57년은 표기 실수다. 그리고 연도별 편수를 보면, 1952년 9편, 1954년 7편, 1955년 3편, 1956년 교장훈사, 1957년 1편이다.

있다.⁷⁰⁾ 그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를 나누고, 유형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교회” 혹은 “형식만의 신자”를 의미하고, 무형적 교회는 “천국 교회”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참 신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교회란 명칭을 붙이고 모였어도 그 속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이다.”고 말한다. 그리고 재건 교인도 두 종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사는 진짜 재건교인과 소속만 재건에 속하고 진리대로 살지 않는 가짜 재건교인으로 나눈다.

이 설교에 나타난 최덕지의 교회론은 위에서 살펴본 도나투스파 교회론보다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에 더 가깝다.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최덕지는 교회를 알곡과 가라지의 혼합체로 보고,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를 구분하고 있다. 오늘날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번역되기도 하는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의 구분은 아우구스티누스 교회론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1절과 2절에도 나타난다. 최덕지는 위에서도 본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교회론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재건 제단과 마귀당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최덕지의 설교 여러 편에서 재건 제단과 마귀당을 구분한다. “재건 제단은 과거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교회이다”⁷¹⁾라고 정의한다. 반면에 마귀당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갖

70) 아래 인용하는 내용은 『모든 것 다 버리고』, 136.

71) 1957년 3월이라고 날짜 표기가 잘못된 설교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제목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 *Ibid.*, 164.

지 못한 자들의 집단체요, 마귀신이 점령한 곳”⁷²⁾이라 정의한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를 받은 지 50년 동안 고이 자라났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당이 마귀당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신사 참배하므로 일제에게 넘어졌기 때문이다.”⁷³⁾ 이렇게 신사참배에 굴복하여 “마귀를 섬긴 우상의 전당이 되어 버렸으니 이미 제단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면서 “재건 제단을 통하여 한국에 삼천 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⁷⁴⁾ 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그는 ‘우상타파’는 재건제단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말한다.⁷⁵⁾ ‘재건 제단’이라는 표현은 위에서 살펴본 도나투스파 교회론에 나타난 “제의적으로 순수한 모임”과 매우 유사하며 하나님께 정결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재건 제단과 마귀당의 구분 외에 최덕지는 재건교회와 현실교회를 대립 시킨다. 그는 현실교회가 재건교회를 율법주의로 비난하는 것을 언급하며 그것이 오해임을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즉 재건교회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계명을 지킨다고 말한다.⁷⁶⁾

③ 왜 절교하는가?

최덕지의 교회재건 방법이 극단의 길을 걸었다고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재건교회 5대 강령 가운데 세 번째 강령인 “불의와 위선에는 절교하자”에 명시된 것처럼 절교를 강조했기 때문이다.⁷⁷⁾ 최덕지는 한 설교

72) *Ibid.*, 136.

73) *Ibid.*, 245.

74) 1954년 어느 주일 설교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설교 *Ibid.* 99, 101.

75) 날짜 표기가 없는 설교로 십계명 강해 설교. *Ibid.* 249.

76) *Ibid.* 141.

문에서 절교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제시했다. 1)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살후3:6) 2) 먹물을 가까이 하면 묻어 검어지기 쉽듯이, 자연히 남의 말을 들어서 다르고, 아니 들어 다르다. 3) 자극을 주어 상대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이다.⁷⁷⁾ 이 세 가지 이유에서 도출되는 절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죄에 빠진 자를 돌이키기 위한 것이다.

이상에서 세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 최덕지 설교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교회론의 핵심적 내용이다. 그런데 첫 번째 항목에 나타나는 지상의 교회를 밀과 가라지의 혼합체로 보는 것은 도나투스파의 교회론의 적어도 초기 형태에 나타나는 의인들의 모임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두 항목, 즉 제의적인 순수성을 가진 재건 제단의 성격과 죄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절교를 강조한 것은 도나투스파 교회론에 나타나는 요소이다. 이외에도 최덕지의 예배당 소각 사건⁷⁹⁾은 도나투스파의 예배당 정화 사건과 매우 큰 유사성을 가진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최덕지의 교회론은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에 나오는 교회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지만 거룩성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강조하는 도나투스파 교회론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7) 허순길은 “최덕지는 교회재건에 있어서 극단의 길을 걸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소각 사건과 절교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고신교회중심』, 서울: 영문, 2008, 372. 각주 50.

78) *Ibid.*, 167. 두 번째 이유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바, 필기자의 실수일 수 있고, 50년대의 표현방식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뜻은 대략 남의 말을 들어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79) 최덕지는 1947년 1월말에서 2월 초에 ‘가미다나’(일제 때 가정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하였던 일본 신사의 축소모형)를 설치하고 우상숭배를 하였던 경남 함안군의 강명교회와 외암교회의 예배당을 소각했다. 그와 함께 소각에 참여했던 8명의 신자는 방화죄로 함안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마산형무소에 구속되었다. 당시 재판정에서 “일본 귀신을 숭배하는 신당이 교회에 있었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찌 두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최덕지의 최후 진술을 들은 판사는 “전일 무죄”를 선고하고 전일 석방하였다. 자세한 경위는 김정일, 『한국기독교 재건교회사 1938-1955』, 서울: 여울목, 2016, 145-168쪽을 보라.

V. 최덕지 교회론의 역사적 교훈: 교회의 거룩성과 일치의 공존을 위한 길

20세기 후반 도나투스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일변도를 반대하고 도나투스파 교회론을 재고할 것을 제안한 학자들은 도나투스파가 교회의 거룩성 유지를 위해 세속적 일치를 포기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사가들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안에서 세포분열을 거듭한 분열의 역사를 보면서 분열은 더 잦고 심화된 분열을 낳는다는 점을 주목한다. 교회사가들이 주목한 이 두 가지 측면은 결국 교회의 거룩성과 일치를 어떻게 함께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임을 보여준다. 이 문제는 교회가 어느 시대나, 특히 박해 이후 시대에 더 크게 직면했던 과제이다. 본고에서 살펴 보았던 해방이후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를 재건해야 했던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거룩성과 일치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최대의 과제였다.

본고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를 상기하면 다음과 같다. 최덕지의 교회재건 운동에 나타난 교회론은 교회사가들이 평가했던 것처럼 ‘극단적 분리주의’ 혹은 ‘극단적 분파주의’ 혹은 ‘도나투스주의’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평가를 내렸던 학자들이 제시했던 근거들, 즉 기성교회를 ‘사탄회’라 부르고 기성교회와 절교할 것을 강조한 최덕지의 행위를 구체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그 행위 자체만 판단하면 과격한 분리주의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고에서 해방직후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그의 설교를 분석한 결과, 최덕지의 교회론을 ‘극단적 분리주의, 혹은 분파주의’ 혹은 단순히 ‘도나투스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재건운동과 설교는 도나투스주의가 가진 장점과 한계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했다. 장점은 그가 신사참배에 굴복한 한국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것이다. 반면에 단점

은 기성교단에서 나와 재건교회를 설립함으로써 그의 의도와 달리 교회 분열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여기서 해방 직후 재건 교단과 고신 교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교회분열의 일차적 책임은 김길창과 같은 교권주의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최덕지의 교회재건 운동은 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는 큰 공헌을 하였으나, 교회의 일치 유지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상황에서 보다 일차적으로 요구된 시대적 과제는 교회의 거룩성 회복이었음을 기억할 때, 그의 공헌은 그의 한계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해방 직후 교회 재건 운동과 최덕지의 교회론 연구는 한편으로는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타락시킨 현재 한국교회의 역사적 뿌리를 볼 수 있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 회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얻게 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일치’라는 두 개의 표지는 구체적 역사적 상황에서 종종 충돌하지만, 그 충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치를 훼손하지 않는 거룩성’과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는 일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신적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주제어 |

교회론, 최덕지, 도나투스주의, 일치, 거룩성, 치리
ecclesiology, Deokji Choi, donatism, unity, sanctity, discipline

참고문헌

I. 동양서

- 김승태.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서울: 다산글방, 1994.
-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1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 김영균. “재건교회와 그 미래.” 2016년 8월 14일 재건부산교회 70주년 기념강연문.
- _____. “재건교회와 개혁주의 신학.” 『역사와 현장』 4 (2008), 재건교회역사연구소.
-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 김인서. “여자고등성경학교방문기.” 『신학지남』 13(1) (1931), 41-45.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의 역사』 (하).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 김정일. 『한국기독교 재건교회사 1938-1955』. 서울: 여울목, 2016.
-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한국민족교회 형성 과정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심군식. 『해와 같이 빛나리』(주남선 목사 전기). 서울: 성광문화사, 1976.
- 안교성. “역사의 화해, 화해의 역사. 한국장로교역사의 새로운 이해.” 『한국교회사학회지』 30 (2011), 303-332.
- 안용준. 『사랑의 원자탄-손양원 목사의 순교 일대기』. 개정판, 서울: 성광문화사, 2009.
- 안이숙. 『죽으면 죽으리라』. 서울: 신망애사, 1968.
- 양낙홍. 『한국장로교회사. 형성과 분열과정·화해와 일치의 모색』.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 양현혜. 『근대 한 일 관계사 속의 기독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오덕교. “칼빈의 관점에서 본 한국 교회의 분열 운동 -신사 참배 문제를 중심으로.” 『신학정론』 20(1) (2002), 194-224.
- 윤정란. “일제강점기 최덕지의 민족운동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總

神大論叢』(1995), 51-97.

- 이상규. “한국교회사에서 본 재건교회의 과제.” 『부경교회사 연구』 16 (2008).
- _____. “해방 후의 상황과 고신 교회의 형성.” 『고신신학』 10 (2008), 155-201.
- 이현준.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나투스주의의 교회론 비교 연구.” 『신학연구』 50(2) (2013), 215-252.
- 이형기 편저. 『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 _____. 『교회론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 여울목, 2016.
-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어제와 오늘』. 서울: 정우사, 1996.
- 임희국. 『선비목사 이원영』. 파주: 조이웍스, 2014.
- 재건총회역사편찬위원회. 『재건교회사』. 부산: 재건총회출판부, 2017.
- 정병준. 『호주 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사상과 한국선교 1889-1942』.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 최덕지. 『모든 것 다 버리고』. 구은순 옮김, 서울: 소망사, 1981.
- 최종규.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송성안 엮음, 창원: 바오, 2016.
- 최훈. 『한국교회박해사-한국재건교회사』. 서울: 예수교 문서 선교회, 1979.
-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고신교회중심』. 서울: 영문, 2008.

II. 서양서

- Actes de la conférence de carthage en 411*, Paris: Cerf, 1972, SC 194. SC 195.
- Augustinus. *Ad Donatistas post collationem*, Paris: DDB, 1965, BA 32.
- _____. *Contra epistulam Parmeniani*, Paris: DDB, 1965, BA 32.
- _____. *De doctrina christiana*. 성염 역주, 『그리스도교 교양』. 분도출판사, 1987.
- Brisson, J. P. *Autonomisme et christianisme dans l'Afrique romaine*, Paris: E. De Boccard, 1958.
- Brown, P. *Augustine of Hippo*, 2000. 정기문 옮김, 『아우구스티누스』. 정기문 옮김, 서울: 새물결 출판사, 2012.
- Cross, F. L. and Livingstone, E. A.(ed.)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 Church*, Oxford University Press, 3rd edition revised, 2005.
- Cyprianus. *Epistolae*. 54, 3, CSEL 3-7.
- Eno, R. B. "Some Nuances in the Ecclesiology of the Donatists", in *Revue des Etudes Augustiniennes*, 1972, 46-50.
- Evers, A. "Augustine on the Church (Against the Donatists)", in : *A companion to Augustine*, edited by Mark Vessey ; with the assistance of Shelley Reid, Willey-Blackwell, 2012.
- Frend, W. H. C. *The Donatist Church. A Movement of Protest in Roman North Africa*, Oxford: Clarendon Press, 1952.
- Füsti-Molnár, S. *Ecclesia sine macula et ruga. Donatist Factors among the Ecclesiological Challenges for the Reformed Church of Hungary especially after 1989/90*, Debrecen: Kapitalis Printing House, 2008.
- Markus, R. A. *Saeculum: History and Society in the Theology of St. August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Optat de Milève, *Le traité contre les donatistes*, Paris: Cerf, 1995, SC 412. 1996.
- Tilley, M. A. "Sustaining Donatist Self-Identity: From the Church of the Martyrs to the Collecta of the Desert."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5(1) (1997), 21-35.
- Thomas Aquinas, *Expositio in Symbolum*, 손은실 역주, 『사도신경 강해설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Abstract

Deokji Choi's Ecclesiology in the Church
Reconstruction Movement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 In Light of Donatist Ecclesiology

Son, Eunsi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article looks into the Church Reconstruction Movement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that was lead by Rev. Deokji Choi (1901-1956), the first woman ordained by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o recover the Church, which had collapsed by the shrine worship forced by the Japanese Empire. It endeavors to propose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her ecclesiology.

Our first question is, "Is Choi's ecclesiology in the Movement 'extreme secessionism', 'extreme sectarianism' or 'Donatism', as church historians generally define it? To answer this question, we situate Choi's Reconstruction Movement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post-liberation period, and analyze her sermons using 'Donatist ecclesiology' as an hermeneutical tool. As a result,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hard to consider her ecclesiology simply as 'extreme secessionism', 'extreme sectarianism' or 'Donatism'. At the same time,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her Reconstruction

Movement and building of Reconstruction Church engendered the division of the Church, which she had never intended, and that her ecclesiology shares a lot with that of Donatists.

Overall, we can state that Choi's Reconstruction Movement contributed much to the restoration of the sanctity of the Church, but lacked the effort to maintain its unity. The limitations of Choi's ecclesiology offer significant lessons to the Korean Church, which has severely torn apart the Body of Our Lord: The road to true restoration of church requires sanctity that does not hamper unity as well as unity that does not hamper sanctity.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reevaluating Deokji Choi's Church Reconstruction Movement, understanding the root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Church, and seeking out the way to unity. Furthermore, it will help foresee and prepare for the problem of the treatment of apostates that the North Korean Churches will have to face in the coming post-reunification period.

국문초록

한국 최초 장로교 여목사 최덕지의 해방 직후
교회재건 운동에 나타난 교회론 연구
: 도나투스파 교회론에 비추어

손은실
장로회신학대학교

이 글은 한국 장로교 여성 가운데 최초로 목사안수를 받은 최덕지(1901-1956)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여 무너진 한국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해방 직후에 전개한 교회재건 운동을 살펴보고, 그의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그의 교회론에 대한 교회사가들의 평가는 지금까지 대체로 매우 부정적이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의 교회론을 ‘극단적 분리주의’ 혹은 ‘극단적 분파주의’ 혹은 ‘도나투스주의’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들의 평가는 최덕지의 재건운동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교회론에 대한 깊은 신학적 해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본고는 이런 연구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최덕지의 교회론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그의 교회재건 운동을 해방 직후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위치시키고 ‘도나투스파 교회론’을 해석학적 도구로 사용하여 그의 설교를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덕지의 교회론을 ‘극단적 분리주의, 혹은 분파주의’ 혹은 ‘도나투스주의’라고 단순

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재건운동과 재건교회 설립은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교회의 분열을 낳았고, 그의 교회론에 도나투스주의와 매우 유사한 성격-장점과 한계 두 측면 모두에 있어서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최덕지의 교회재건 운동은 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는 큰 공헌을 하였으나, 교회의 일치 유지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교회의 거룩성 회복이야말로 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공헌이 한계보다 훨씬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최덕지의 교회론이 지금 주님의 몸을 수없이 많은 조각으로 찢어놓고 만신창이로 만든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은 실로 무겁다. 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일치를 해치지 않는 거룩성’과 ‘거룩성을 해치지 않는 일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가 최덕지의 교회재건 운동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의 분열된 현실의 뿌리 이해와 일치의 길 모색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교회가 직면하게 될 해방직후와 유사한 배교자 치리 문제를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접 수 일 (2017년 10월 31일)

수 정 일 (2017년 11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2월 03일)